

웰빙과 삶의 의미: 임계점 설명

한국가톨릭철학회 2025 봄 학술대회 발표
최동용(인하대)

1. 서론

웰빙과 삶의 의미는 삶을 평가하는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 한 개인이 도덕적 목표를 세우고 일생을 통틀어 그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한다면 특별한 고려 사항이 없는 한 그 삶은 그 개인에게 좋은 삶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동시에 의미 있는 삶으로도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두 영역과 관련하여 최근 Ben Bradley(2015)는 “삶의 의미”가 웰빙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일 수 있다는 도발적인 주장을 제기하였습니다. 그에 따르면, 삶의 의미가 웰빙과 별개의 영역인지 불분명한데, 그 이유는 두 영역이 동일한 본래적 가치 목록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의 주장대로라면 의미 있는 삶은 당사자에게 나쁜 삶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미 있는 삶과 당사자에게 좋은 삶은 사실 동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 발표를 통해 저는 Bradley 논증의 문제점을 보이려고 합니다. 특히, 사후에 발생한 사건이 웰빙의 관점에서 나쁜 삶을 좋은 삶으로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삶의 의미의 관점에서는 그러한 변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이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가치있는 항목을 소유하는 동안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에 가치를 두는 일의 중요성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Matthew Hammerton(2022)의 설명과 비교하면서 본 발표의 입장이 보다 설득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 논의를 통해 웰빙과 삶의 의미가 독립적인 영역임을 명확히 하고 의미 있는 삶이지만 당사자에게 반드시 좋은 삶이 아닐 수도 있음을 보이려고 합니다.

2. 동일한 목록 논증

축소적 도전은 웰빙과 삶의 의미에 관한 하나의 논제입니다. 이 논제에 따르면, “삶의 의미”라는 영역은 단순히 웰빙을 가리키는 또 다른 명칭일 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Bradley는 축소적 도전을 지지합니다. 그는 웰빙과 삶의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의미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대체로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과 같은 패턴을 따르고 있다. 따라서 삶의 의미라는 개념이 웰빙과 확실히 구별되는 개념인지 분명하지 않다. [...] 어떤 개인이 자신의 삶에서 의미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이는 단순히 그녀의 삶이 웰빙의 중요한 요소들 중 일부를 결여하고 있다는 점을 걱정하는 것일 수 있다(66-67).

웰빙에 관한 문헌에서 객관적 목록 이론은 사회 정의 실현과 같은 특정 항목들은 개인의 태도와 무관하게 개인에게 좋다고 주장합니다. 삶의 의미에 대한 문헌에서 객관주의 이론도 삶의

의미에 대해 유사한 주장을 펼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어떤 항목은 개인이 그것을 원하지 않더라도 그 개인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듭니다. 웰빙에 대한 또 다른 접근 방식은 욕구 충족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어떤 항목이 한 개인에게 좋은 것은 그가 그것을 욕구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삶의 의미에 관한 문헌에서 주관주의 이론도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 해당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이유로 그 목표가 개인이 원하는 것이라는 점을 꼽습니다. 이러한 유사성에 근거하여 Bradley는 이 두 영역이 동일한 가치 목록을 공유하기 때문에 같은 영역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발표는 Bradley의 이 논증을 동일한 목록 논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혹자는 웰빙과 삶의 의미에 대한 논의가 유사하다고 해서 반드시 “삶의 의미”가 웰빙의 또 다른 표현에 불과하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이 유사성은 연구자들이 웰빙 논의를 차용하여 삶의 의미를 탐구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일 수 있으며 삶의 의미가 가진 독자적인 특징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판은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사성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는 않더라도 “삶의 의미”가 웰빙의 또 다른 이름일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두 가치 영역이 정말로 구별되는 것이라면 한 영역에서 얻은 통찰이 다른 영역에 적용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논증이 축소적 도전을 결정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두 영역이 구별되는 영역인지를 탐구할 강력한 동기를 제공합니다.

3. 가치적 차이 현상

웰빙과 삶의 의미에 관한 다음의 사례를 시작으로 하여 동일한 목록 논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실패한 삶 영희는 억압과 빈곤 속에서 살아간다. 그녀는 평생동안 아무런 성취도 이루지 못하며, 자신의 투쟁을 기록한 일기 한 권만을 남긴다. 그녀는 이 일기가 사회 정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생전에 그 바람이 이뤄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녀가 사망한 후 이 일기가 발견되어 개인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며 억압과 빈곤을 완전히 근절하는 사회적 변화를 일으킨다.

만약 웰빙과 삶의 의미가 영희가 살아 있는 동안의 사건만을 고려한다면, 그녀의 삶은 극도로 나쁜 삶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영희는 생전에 일기를 쓰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이루지 못했고, 그녀의 삶은 오직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삶이 그녀에게 나빴으며 (거의) 의미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점에서 웰빙과 삶의 의미는 영희의 삶을 같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두 영역이 사후에 실현된 정의까지 고려한다면, 그녀의 삶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것입니다. 영희의 삶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녀의 삶을 의미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영희의 삶이 이 변화를 촉진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녀가 겪은 고통을 고려할 때 그녀의 삶이 그녀에게 좋은 삶이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동일한 사건, 즉 사후에 실현된 사회 정의가 웰빙 영역과 삶의 의미 영역에서 서로 다른 정도의 가치를 갖는다는 점은 영희의 삶이 원할만한지에 관한 질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답변은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영희의 삶은 도덕적 변화를 일으켰기 때문에 좋은 삶이지만, 나 자신은 영희와 같은 삶을 살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그런 삶에서는 살아 있는 동안 오직 고통만 겪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반응은 영희의 삶을 두 가지 관점에서 평가합니다. 첫 번째 관점에서는 영희의 삶이 사회 정의 실현에 기여했기 때문에 좋은 삶으로 평가됩니다. 반면, 두 번째 관점에서는 영희의 삶이 사회 정의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 있는 동안 극심한 고통을 동반했기 때문에 욕구할만한 삶이 아니라고 평가됩니다. 이 두 가지 관점을 해석하면, 첫 번째는 의미 영역의 관점이며, 두 번째는 웰빙 영역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희는 평생 극심한 고통을 겪었지만, 그녀가 사망한 후 그녀의 삶은 사회 정의 실현으로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의미 영역의 관점에서는 영희의 삶은 좋은 삶입니다. 그러나 영희의 삶이 변화를 촉진했다라도 그녀가 살아 있는 동안 겪은 극심한 고통을 고려할 때, 웰빙 영역에서는 그녀의 삶을 원할만하다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한 개인이 어떤 삶을 살지 선택할 수 있으며, 그 선택의 유일한 기준이 다른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좋은 삶을 사는 것이라면, 영희와 같은 삶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가치적 차이 현상은 사후에 실현된 사회 정의가 웰빙과 삶의 의미 중 어떤 기준에서 평가되는지에 따라 그 가치의 정도가 달라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 현상은 동일한 목록 논증의 문제점을 부각시킵니다. 이 현상은 동일한 목록 논증이 주장하는 것처럼 두 영역이 같은 목록을 공유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차별적인 특징, 즉 가치의 차이로 인해 구별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4. 임계점 설명

가치적 차이 현상은 동일한 목록 논증에 대한 반례입니다. 이 반례만으로도 웰빙 영역과 삶의 의미 영역이 구별된다는 점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지만, 제가 제시하는 임계점 설명은 두 영역 간의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임계점 설명에 따르면, 웰빙 영역과 삶의 의미 영역은 각각 한 개인의 삶을 평가하는 데 필수적인 임계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삶에 축적된 긍정적 가치에서 부정적 가치를 제외한 총합이 각 영역의 최소 임계점보다 낮으면 그 삶은 각 영역에서 극도로 나쁜 삶으로 간주됩니다. 반대로, 그 총합이 충분성 임계점을 초과하면 좋은 삶으로 평가됩니다. 실패한 삶 사례에서 영희는 생전에 억압과 빈곤으로 인해 고통 받으며, 이루고자 했던 목표 대부분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 삶의 의미 영역에서 그녀의 삶의 총 가치는 최소 임계점에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영희가 살아 있는 동안의 사건들만 고려하면, 삶의 의미 관점에서 그녀의 삶은 극도로 나쁜 삶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사망한 후, 그녀의 삶은 사회 정의 실현에 기여하게 되며, 이는 그녀가 원했던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의 가치가 그녀의 삶에서 발생한 부정적 가치를 상쇄하면서, 삶의 총 가치는 처음에는 최소 임계점을 넘어서고, 결국 충분성 임계점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후에 실현된 사회 정의는 영희의 극도로 나쁜 삶을 의미 있는 삶으로 변화시킵니다.

웰빙 영역에서 사망하기 전의 사건들만 고려하면, 영희는 억압과 빈곤 속에서 고통받았기 때문에 총 가치가 최소 임계점보다 낮습니다. 만약 사후에 실현된 사회 정의까지 고려한다면,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그녀의 삶의 총 가치는 이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보다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영희가 오랫동안 사회 정의 실현을 바랐으며, 이 사건이 그녀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중요한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회 정의의 실현은 제한적인 가치만을 가지며, 이는 그녀의 삶의 총 가치를 충분성 임계점 이상으로 끌어올리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에 실현된 정의를 고려하더라도 웰빙 관점에서 영희의 삶이 좋은 삶이라고 평가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삶의 의미”가 웰빙의 또 다른 명칭에 불과하다면, 이 두 영역에서 사후 정의 실현은 임계치 돌파에서 같은 효과를 보였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구별됩니다.

임계점 설명을 온전히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사후에 실현된 사회 정의가 삶의 의미 영역에서는 영희의 삶의 총 가치를 충분성 임계점 이상으로 끌어올리지만, 웰빙 영역에서는 그렇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동일한 사후 사건이 웰빙 영역과 삶의 의미 영역에서 서로 다른 정도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주장이 자의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경험-가치 정당화에 따르면, 이러한 차이는 경험과 가치 부여가 웰빙 영역과 삶의 의미 영역에서 각기 다른 중요성을 가지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한 개인이 어떤 항목을 소유하는 동안 그것을 경험하지도, 가치 있게 여기지도 않는다면, 웰빙의 관점에서 그 항목은 그 개인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더라도 제한적인 정도로만 영향을 미칩니다. 실패한 삶 사례에서 영희는 이미 사망하여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 그것을 경험할 수도, 가치 부여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에 실현된 사회 정의는 제한적인 웰빙적 가치만 가지며, 영희의 극도로 나쁜 삶을 좋은 삶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반면, 삶의 의미 영역에서는 한 개인이 자신의 성취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것을 소유하는 동안 가치 있게 여기지 않더라도, 그 성취가 그의 삶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삶의 의미 관점에서는 사후에 실현된 정의가 영희의 극도로 나쁜 삶을 의미 있는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경험-가치 정당화는 웰빙과 삶의 의미에 관한 설득력 있는 관점을 제공합니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실패한 삶의 변형된 사례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영희가 살아 있는 동안 사회 정의가 실현됩니다. 이 경우, 만약 영희가 자신이 기여한 사회 정의 실현을 직접 경험하고,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긴다면, 그녀의 극도로 나쁜 삶은 웰빙 관점에서 좋은 삶으로 변화할 수도 있습니다. 즉, 영희의 삶이 원할만한 삶인지 묻는다면, 그녀가 사회 정의 실현을 직접 경험하고 경험 중 그것을 가치 있게 여겼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한 대답은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시기가 있었지만, 그녀가 살아 있는 동안 사회 정의가 실현되었고, 이를 직접 목격하며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에, 영희에게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좋은 일일 수 있다. 그것이 그녀에게 가장 좋은 삶은 아닐 수 있지만, 여전히 좋은 삶이었다.” 이 답변이 적절하다는 점은 영희가 사회 정의 실현을 경험하고 경험 중 그것을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에 그녀의 삶이 그녀에게 좋은 삶으로 변화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회 정의가 영희 사망 후 실현된 원래 사례에서는 그녀는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고 가치를 부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 실현은 그녀의 극도로 나쁜 삶을 의미 있는 삶으로 변화시킵니다. 따라서 삶의 의미 영역에서는 경험과 가치 부여가 웰빙 영역만큼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 보아야 할 것

입니다.

경험-가치 정당화를 지지하는 또 다른 이유는, 특히 웰빙에 대한 주장을 중심으로 볼 때, 이 정당화가 웰빙의 본성에 관한 주요 이론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경험-가치 정당화를 주요 이론들과 통합하려는 시도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통합이 불가능한 다른 정당화와 비교할 때 경험-가치 정당화는 이론적 강점을 가집니다. 객관적 목록 이론에 따르면, 어떤 항목은 개인이 그것을 선호하든 하지 않든 그 자체로 한 개인의 삶을 그 개인에게 더 나은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핵심 주장과 일관되게, 경험-가치 정당화 또한 특정 항목이 개인이 그것을 가치 있다고 여기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좋은 것일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개인이 어떤 항목을 소유하는 동안 그것을 경험하지도 않고 가치 부여도 하지 않는다면, 그 항목의 본래적인 웰빙 가치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완전주의 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목표 달성은 인간적 역량, 특히 이성을 활용하는 활동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삶을 웰빙적 관점에서 향상시킵니다. 이러한 틀 안에서 한 개인이 어떤 항목을 소유하는 동안 그것을 경험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치 있는 결과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는 행위는 합리적인 행위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자신의 기여로 이루어진 가치 있는 결과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 결과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상당한 가치를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쾌락주의에 따르면, 쾌락의 웰빙적 가치는 그것의 강도에 의해 결정됩니다. 경험-가치 정당화는 한 개인이 어떤 항목을 소유하는 동안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가치 있게 여기지도 않는다면, 그로부터 쾌락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어떤 개인이 음악이 재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 음악을 선호하지 않는다면 그 음악으로부터 쾌락을 경험하지 못하는 상황과 유사합니다. 욕구 충족 이론에 따르면, 어떤 항목을 욕구한다는 사실 자체가 그 항목에 가치를 부여합니다. 이러한 이론에 따르면, 단순히 어떤 항목을 욕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그것이 개인에게 좋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욕구 충족 이론은 어떤 항목이 가치를 가지기 위해 그 항목을 욕구한다는 사실 외에 추가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Heathwood(2005)는 개인이 어떤 항목을 욕구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만 그것이 그 개인에게 이로울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또한 Heathwood(미발표)는 어떤 항목이 가치를 가지려면 단순히 욕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것이 충족되는 경험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경험-가치 정당화는 이 입장을 보다 약한 형태로 해석하며, 한 개인이 어떤 항목을 소유하는 동안 그것을 경험하지도 않고 욕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그에게 일정한 이익을 주더라도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5. 총합 설명

축소적 도전에 반대하며 Hammerton(2022)도 삶의 의미 영역이 웰빙 영역과 분명히 구별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축소적 도전에 대한 논박을 시작하기 위해 그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제시합니다:

한 개인이 자신의 공동체에서 뛰어난 도덕적 지도자가 되었지만, 그 결과 이론적 지식, 미적 감수성, 그리고 친밀한 인간관계를 발전시킬 시간이 제한된다고 가정해 보자. 이 삶을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중간 정도의 성취를 이루었으나 특별히 두드러지지 않는 균형 잡힌 삶과 비교해 보면, 두 삶의 총 가치가 같을 때, 과연 어느 삶이 그 삶을 사는 개인에게 더 나은 삶인가(580)?

이 사례를 **도덕적 지도자** 사례라고 부르겠습니다. 도덕적 지도자 사례에 대해 Hammerton은 만약 삶의 의미 영역에서 균형 잡힌 삶과 도덕적으로 뛰어난 삶의 총 가치가 동일하다면, 두 삶은 똑같이 의미 있는 삶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웰빙 영역에서는 두 삶의 총 가치가 동일하다고 해도, 균형 잡힌 삶이 도덕적으로 뛰어난 삶보다 더 나은 삶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Hammerton은 이러한 직관적 판단을 뒷받침하기 위해 **총합 설명**을 제안합니다. 총합 설명에 따르면, 삶의 의미 영역에서는 균형 잡힌 삶과 도덕적으로 뛰어난 삶 모두 동일한 총합 원리에 따라 평가되며, 따라서 두 삶은 동일하게 좋은 삶으로 간주됩니다. 반면 웰빙 영역에서는 균형 잡힌 삶에만 특별한 총합 원리가 적용되며 그 결과 두 삶의 총 가치는 동일하지만 균형 잡힌 삶이 도덕적으로 뛰어난 삶보다 그 가치로부터 더 큰 이점을 얻습니다.

Hammerton은 도덕적 지도자 사례에서 왜 웰빙 영역이 균형 잡힌 삶에 특별한 총합 원리를 적용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균형 정당화**를 제시합니다. 균형 정당화에 따르면, 웰빙과 삶의 의미 영역에는 다양한 본래적 가치가 존재합니다. 특히 Hammerton은 이론적 지식, 미적 감수성, 친밀한 관계, 도덕적 선 등이 각각 그 자체로 개인의 삶을 웰빙적으로 더 나은 것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더욱 의미 있는 삶으로도 기여한다고 주장합니다. 본래적 가치에 대한 이와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Hammerton은 모든 본래적 가치를 충분히 가질 때 웰빙 영역은 해당 삶을 평가하는 데 특별한 총합 원리를 적용한다고 주장합니다. 더불어 Hammerton은 이 특별한 원리가 다른 원리보다 그 삶을 더 나은 삶으로 간주하게 만든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도덕적 지도자 사례에서 균형 잡힌 삶은 도덕적으로 뛰어난 삶과 동일한 총 가치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삶으로 평가됩니다. 반면 삶의 의미 영역에서는 이 원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균형 정당화의 문제점 중 하나는 본래적 가치에 관한 다원주의에 의존한다는 점입니다. 다원주의는 웰빙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지만, 일원주의도 이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쾌락주의는 쾌락이 유일한 본래적 가치라고 주장합니다. 마찬가지로, 완전주의에 따르면 인간성의 완성, 즉 인간 역량의 함양과 발휘가 개인의 삶을 향상시키는 유일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이론들 내에서 한 개인은 본래적 가치의 균형을 가질 수 없는데, 그 이유는 그러한 균형이 존재하려면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의 본래적 가치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균형 정당화를 받아들이는 것과 일원주의 이론을 받아들이는 것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쾌락주의와 완전주의가 웰빙에 대한 그럴듯한 이론이라는 점에서 발생합니다. 물론 이러한 일원주의 이론들이 웰빙의 본질을 정확하게 포착하는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이론들이 웰빙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접근 방식들로 남아 있습니다. 균형 정당화가 이러한 주요 웰빙 이론들과 양립할 수 없다는 사실은 그것의 중요한 결점이며, 웰빙의 본질에 대한 이러한 이론들이 틀렸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균형 정당화를 의심할 근거를 제공함

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경험-가치 정당화는 균형 정당화와 달리 일원주의와 다원주의를 포함한 네 가지 주요 이론과 조화를 이룹니다. 영희는 사망한 후 사회 정의 실현을 경험할 수도, 그것에 가치를 부여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본래적으로 가치 있는 항목의 하나로 이해되든, 유일한 가치인 인간성의 완성으로 간주되든, 사후 사회 정의 실현은 제한적인 가치만을 가질 뿐입니다. 쾌락주의 관점에서는 쾌락만이 가치를 지닙니다. 어떤 항목이 한 개인에게 인식되지 않거나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유발하는 쾌락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망한 영희는 사회 정의 실현에서 유일하게 가치 있는 쾌락을 끌어낼 수 없으므로, 그 사건이 그녀의 나쁜 삶을 좋은 삶으로 만들 수 없는 것은 자명합니다. 욕구 충족 이론의 관점에서는 욕구의 모든 대상이 본래적 가치를 지니지만 자신이 원하는 항목을 획득하는 경험을 하지 못하고 그것을 소유하는 동안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면, 욕구의 대상이 된 항목은 제한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에 따르면, 정의 실현은 영희가 그 실현을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경험하지도, 달성 시 가치 있게 여기지도 못했기 때문에 제한적 가치만을 지닙니다.

균형 정당화의 또 다른 문제는 도덕적 지도자 사례가 균형 정당화, 더 나아가 종합 설명을 직관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는지 불분명하다는 점입니다. 논의를 위해 웰빙의 최소 측정 단위를 w 로 삼겠습니다. 더불어 미분학을 이해하는 것이 $10w$, 베토벤의 교향곡 9번을 듣는 것이 $10w$, 친구를 사귀는 것이 $10w$,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30w$ 의 가치를 갖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례에서 지도자가 두 선택지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미분학을 이해하고, 베토벤의 음악을 감상하며, 친구를 사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균형 정당화에 따르면, 이 지도자는 첫 번째 선택지를 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두 선택지의 총 가치는 동일하지만, 두 번째 선택지는 이론적 지식, 미적 감수성, 친밀한 관계 면에서 결핍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의 실현이 미분학 이해, 베토벤 음악 감상, 친구 사귀기와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고 한다면, 두 선택지 중 어떤 것을 선택하든 합리적일 것입니다. 즉, 총 가치가 동일하다면, 균형 잡힌 삶을 사느냐, 한 가지 영역에 집중한 삶을 사느냐의 선택은 개인의 선호에 따라 달라질 문제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패한 삶 사례에서 영희는 끊임없는 고통 속에서 살았고 사후에야 사회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더라도 웰빙의 관점에서 그녀의 삶이 좋은 삶이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삶의 의미의 관점에서는 그녀가 사회 정의 실현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그녀의 삶이 좋은 삶이었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판단이 임계점 설명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임계점 설명은 강력한 직관적 토대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임계점 설명은 직관적으로 설득력 있는 정당화도 제시합니다. 경험-가치 정당화에 따르면, 어떤 항목을 소유하는 동안 그것을 경험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웰빙 영역에서는 매우 중요한 반면, 삶의 의미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주장에는 두 가지 직관적 판단이 근거로 작용합니다. 첫째, 만약 영희가 사회 정의 실현을 직접 경험하고 그것을 가치 있게 여겼다면, 사회 정의 실현은 그녀의 극도로 나쁜 삶을 웰빙의 관점에서 좋은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둘째, 원래의 사례에서처럼 영희가 사후에 사회 정의 실현을 경험하지도, 가치 있게 여기지도 못했을지라도, 그 실현은 여전히 그녀의 극도로 나쁜 삶을 의미 있는 삶으로 변화시킨다. 이 판단들은 경험과 가치 부여가 두 가치 영역에서 서로 다른 정도의 중요성을 가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와같이, 임계점 설명은 총합 설명과 달리 다층적인 직관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6. 결론

축소적 도전에 따르면, 연구자들은 웰빙 영역과 삶의 의미 영역을 서로 구별되는 가치 영역으로 간주하지만, 삶의 의미는 사실 웰빙에 불과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Bradley의 동일한 목록 논증에 따르면, “삶의 의미”는 단순히 웰빙 영역을 가리키는 또 다른 명칭일 뿐인데, 그 이유는 두 가치 영역이 동일한 본래적 가치 목록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본 발표에서는 두 가치 영역이 유사한 본래적 가치 목록을 가지고 있더라도, 축소적 도전이 웰빙과 삶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가치 목록을 넘어, 사후 사건의 가치 차이가 두 영역이 구별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삶의 의미가 웰빙과는 독립적인 영역을 구성하며, 어떤 삶이 한 개인에게 의미 있는 삶일 수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 개인에게 나쁜 삶일 수도 있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타당합니다.

7. 참고문헌

Alwood, A. 2023. ‘Alienation, Resonance, and Experience in Theories of Well-being,’ *Philosophia* 51, pp. 2225-2240.

Bradley, B. 2015. *Well-Being*. Cambridge: Polity Press.

Bradford, G. 2015. ‘Perfectionism,’ in G. Fletcher (ed.) *The Routledge Handbook of Philosophy of Well-Being*. New York: Routledge, pp. 124-134.

Bradford, G. 2017. ‘Problems for Perfectionism,’ *Utilitas* 29, pp. 344-364.

Bramble, B. 2016. ‘A New Defense of Hedonism about Well-being,’ *Ergo* 3, pp. 85-112.

Crisp, R. 2006. ‘Hedonism Reconsidered,’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73, pp. 619-645.

Dorsey, D. 2012. ‘Subjectivism without Desire,’ *Philosophical Review* 121, pp. 407-442.

Dorsey, D. 2018. ‘Prudence and Past Selves,’ *Philosophical Studies* 175, pp. 1901-1925.

Feldman, F. 2004. *Pleasure and the Good Life: Concerning the Nature Varieties and Plausibility of Hedonism*. Oxford: Clarendon Press.

- Fletcher, G. 2015. 'Objective List Theories,' in G. Fletcher (ed.) *The Routledge Handbook of Philosophy of Well-Being*. New York: Routledge, pp. 148-160.
- Gregory, A. 2015. 'Hedonism,' in G. Fletcher (ed.) *The Routledge Handbook of Philosophy of Well-Being*. New York: Routledge, pp. 113-123.
- Hammerton, M. 2022. 'Well-Being and Meaning in Life,' *Canadian Journal of Philosophy* 52, pp. 573-587.
- Heathwood, C. 2005. 'The Problem of Defective Desires,' *Australasian Journal of Philosophy* 83, pp. 487-504.
- Heathwood, C. 'The Problem of Remote Desires,' Manuscript.
- Hooker, B. 2008. 'The Meaning of Life: Subjectivism, Objectivism, and Divine Support,' in N. Athanassoulis and S. Vice (eds.) *The Moral Life: Essays in Honour of John Cottingham*. New York: Palgrave Macmillan: pp. 184-200.
- Hurka, T. 1993. *Perfectionis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Kauppinen, A. 2015. 'Meaningfulness,' in G. Fletcher (ed.) *The Routledge Handbook of Philosophy of Well-Being*. New York: Routledge, pp. 281-291.
- Lin, E. 2020. 'The Experience Requirement on Well-being,' *Philosophical Studies* 178, pp. 867-886.
- Lin, E. 2022a. 'Well-being, Part 1: The Concept of Well-being,' *Philosophy Compass* 17, pp. 1-15.
- Lin, E. 2022b. 'Well-being, part 2: Theories of Well-being,' *Philosophy Compass* 17, pp. 1-23.
- McKerlie, D. 2007. 'Rational Choice, Changes in Value over Time, and Well-being,' *Utilitas* 19, pp. 51-72.
- Metz, T. 2012. 'The Meaningful and the Worthwhile: Clarifying the Relationships,' *Philosophical Forum* 43, pp. 435-448.
- Metz, T. 2013. *Meaning in Life: An Analytic Stud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ill, J. S. 1987. *Utilitarianism and Other Essays*. New York: Penguin Books.
- Prinzinger, M. M. 2021. 'The Meaning of 'Life's Meaning',' *Philosophers' Imprint* 21, pp. 1-14.
- Railton, P. 1986. 'Facts and Values,' *Philosophical Topics* 14, pp. 5-31.
- Rice, C. M. 2013. 'Defending the Objective List Theory of Well-Being,' *Ratio* 26, pp. 196-211.
- Smuts, A. 2018. *Welfare, Meaning, and Worth*. New York: Routledge.
- Sobel, D. 1994. 'Full Information Accounts of Well-being,' *Ethics* 104, pp. 784-810.

Trisel, B. A. 2002. 'Futile and the Meaning of Life Debate,' *Sorites* 14, pp. 70-84.